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로 함께 하는
강릉시의회



제309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를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강릉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고, 김영식 의원이 '강릉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신보금 의원이 '지방소멸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강릉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10분 자유 발언했다.



▶10분 자유발언 강릉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김영식 의원

강릉시 관광정책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신설 및 관광국 이전으로 큰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각종 국제 대회의 연속 개최와 KTX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의 개선 등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강릉시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안가 일대의 페타이어 진지와 방치된 철책 철거 등 강릉시 해안가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이 체류하도록 유인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강릉시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유치하며 세계 최고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10분 자유발언 지방소멸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강릉시의 대응 방안



신보금 의원

현재 강릉시 인구는 2000년 23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감소 폭이 유지된다면 21만 명 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큼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시대에 정주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이 유지될 수 있는 해답은 거주 중심 인구 관점에서 관계와 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동 인구와 중장기 체류 인구까지도 포함하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부는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 인구'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중앙 부처에서는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지방 여건을 고려하여 새롭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강릉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발굴하고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강릉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행정위원회 활동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 원안가결

□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등 시민 참여 유도 방안 적극 검토 당부.



□ 강릉시 문화예술에 대해 강릉문화재단의 책임이 큰 만큼 향후 재단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

□ 강릉시민의 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립복지원 주변의 유유토지 활용을 통한 환경개선과 시립복지원의 노숙인 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 두 시설 운영에 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산업위원회 활동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원안가결
및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개선점 보완을 해야 하며,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커피 종사자들과 상생 및 소통이 필요함을 당부.



□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 또, 내년 중앙정부의 R&D 예산 감액에 맞춰 강릉과학산업진흥원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

▶의원 발의 조례

안건명	대표 발의 의원	제안 이유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윤희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 기념 및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식	강릉시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강릉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숙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갱생보호 대상자를 지원범위에 포함, 지원 대상자의 범위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 정비
강릉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대영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김영식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로 마련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무	강릉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경남	강릉시 커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신보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자 함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숙박금지를 규정하고 공영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시 경고스티커 부착 및 강제 이동 조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폐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상임위 심사 보고한 43건 가결 등

강릉시의회는 지난 9월 18일 제3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산업위원회)별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주요 조례안 및 안건 심사가 진행되었고, 산업위원회의 주요사업 현장 방문이 있었다.

행정위원회는 '강릉 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총 4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했다.

이어서 김홍수 의원의 '강릉시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과 김현수 의원의 '강릉 해변 운영 획기적 변화 모색 제안'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기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43건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이 10건"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복지 지원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해 준 의원들과 성실하게 임시회에 임해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제31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10분 자유발언 강릉시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김홍수 의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이고, 강릉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인구, 경제, 행정 등 분야별로 나날이 커지는 격차는 강릉이 풀어야 할 큰 숙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개청한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 등 잇따른 호재에 발맞춰 시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강릉의 농어촌 지역은 시내권과 비교 시 각종 인프라의 부실로 기본적인 생활 영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 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개발해야 하며, 거주지에 따라 보편적인 혜택이나 공공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휴식과 관광의 관점을 넘어 일상과 생애의 관점이 더해져 강릉시 어디에 살더라도 일하기도 좋고 평생 살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릉 해변 운영 획기적 변화 모색 제안



김현수 의원

올여름 해수욕장 피서객 수 집계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해안 시·군 중 강릉이 1위입니다. 하지만 도내 동해안 전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의 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해수욕만을 위주로 하는 기존 형태의 해수욕장 운영으로는 피서객 수의 하락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획기적이고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며 강릉이 '제일 해변 관광도시 강릉'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린 시각과 개혁적인 자세로 참신하고 새로운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공간을 대규모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스킨스쿠버, 패러세일링 등 다양하고 규모가 큰 수상 레포츠 공간 조성과 머슬 비치 조성, 해변 야외 수영장, 비치 시네마 등 새로운 공간을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강릉시가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해변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관광 해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을지연습장 위문(8.22)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연구회 세미나(8.25)



▲제14회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8.31)



▲어촌 휴가 챌린지(9.4)



▲제68주년 강릉시민의 날 경축기념식(9.1)



▲새마을 한마음 효 잔치(9.6)



▲산업위원회 현장 방문(9.14)



▲강릉시의회 청렴 연수(9.15)